

# 석유화학, 한국-일본 수출 경쟁

## 주요 수출품목 중복비율 52% ... 플라스틱은 경합도 가장 높아

한국과 일본의 주요 50대 수출품목 중 절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경합은 해마다 치열해지고 있어 엔화약세와 원화강세 흐름 속에서 국내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이 이른바 <환율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12년 한국과 일본의 50대 수출품목 가운데 중복되는 품목이 26개로 중복비율은 52%에 달했다.

WCO(세계관세기구)가 분류하는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12년 주요 수출품목을 비교한 결과로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 석유와 역청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해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전자집적회로, 선박, 액정 디바이스, 자동차부품, 전화기, 기계류 등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들이 대부분 일본과 중복됐다.

일본과의 중복비율은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0년 주요 50대 수출품목의 한국-일본 중복비율은 20%에 불과했으나 2002년 42%로 급증했고 2006년에는 50%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0년 48%로 다소 주춤했으나 2012년부터 52%를 유지했다.

수출품목을 더 넓은 범위인 HS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10개 가운데 9개가 일본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선박, 플라스틱제품, 철강, 정밀기기,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이 일본 10대 수출품목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전체 산업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0년 0.394로 2000년 0.221에 비해 경합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자부품이 같은 기간 0.205에서 0.621로 경합도가 크게 치솟았으며, 플라스틱제품 0.657, 자동차 0.625로 가장 높은 경합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주요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율흐름은 국내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파른 엔화약세와 원화강세로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달러당 70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은 90엔대까지 치솟아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따라 엔화약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엔화약세와 원화강세가 나타나도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세계 수요의 회복속도가 느리면 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화학 등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 및 품목의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28>